



# 마스크 벗으니 가을바람 '야외 라이브'에 빠져볼까

50인 이상 공연 등 실외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올가을 '노 마스크'로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가요계에서는 때마침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이달 굵직한 야외 콘서트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음악 팬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2일 가요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15일 오후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무료 콘서트 'Yet To Come in Busan'을 연다. 이 공연은 지난 3월 서울 잠실주경기장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국내 콘서트로 일찌감치 관심을 끌었다.

이 콘서트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5만명 안팎의 관객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인기로 매진 사례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인 만큼,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예매 전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다. 공연 좌석은 당연히 전석 매진된 상태다.

방탄소년단은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아미'(방탄소년단 팬)를 위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라이브 플레이도 마련했다.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무대는 별도 예매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JTBC로 생중계되고, 위버스·제페토·나이버 나우 등으로도 실시간 스트리밍된다. 그야말로

전 국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셈이다. 10월 야외 공연의 포문을 가장 먼저 연 가수는 이문세다. 이문세는 전날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야외 콘서트 '2022 씨어터 이문세 인 더 파크'(Theatre LEE MOON SAE in the Park)를 열고 있다.

'씨어터 이문세'는 그가 2년마다 콘셉트를 바꿔 여는 공연 브랜드로, 올해는 '이문세표 발라드 축제'를 주제로 삼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광화문 연가', '옛사랑', '소녀', '가요수 그늘 아래 서면' 등 국민적인 히트곡을 감상할 수 있다.

엘 마리와 라우브 등 해외 팝스타가 무대에 오르는 야외 음악 페스티벌도 열린다. 이들을 비롯해 미국 밴드 레이니, 영국 음악 프로듀서 겸 DJ 조나스 블루, 영국 싱어송라이터 샘 라이더 등은 이달 8~10일 한글날 연휴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제4회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라이프 2022'에 출연한다.

엘 마리는 히트곡 '2002'로 국내에서도 음원 차트 1위에 오른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달 22~23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또 다른 야외 음악 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GMF) 2022'가 팬들을 찾는다. 행사에서는 '민트 브리즈 스테이지' '러닝 포레스트 가든' 두 무대로 나눠 하루에 7팀씩 각각 공연을 펼친다. 심선지, 불발간사촌기, 적재, 소란 등 가을 감성에 어울리는 가수들의 무대가 준비됐다.

연합뉴스



BTS, 15일 부산 엑스포 공연  
이문세 올림픽공원서 콘서트  
8일 '슬로우 라이프 2022'  
엘 마리아루브 등 열광무대



(위부터 시계방향) BTS 이문세,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라이프 2022 연합뉴스·각사 제공

## “안하무인 재벌 2세, 욕심 났죠”

KBS 드라마 '오라차차 내인생'

양병열

상처많은 캐릭터 첫 주연 호평



배우 양병열 인피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오디션을 본 날 감독님이 ‘잘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집에 가서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자신감이 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어요. 어릴 적에는 무척데고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선택은 자신감으로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최근 막을 내린 KBS 일일드라마 '오라차차 내 인생'에서 첫 주연을 맡아 상처 많고 절망적 재벌 2세의 성장기를 섬세하게 표현한 배우 양병열은 오디션 당시에 이렇게 떠올랐다. 드라마 종영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에서 만난 양병열은 “그동안 선하고 모범적인 캐릭터들을 주로 맡았는데 감자열은 절없고, 날카롭고, 예외도 없는 캐릭터라서 도전해보고 싶었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가 연기한 감자열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작은 아버지에게 양양된 뒤 회사 경영권을 두고 그를 견제하는 어머니와 형에게서 벗어나 독립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인물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짜고짜 반말하는 등 안하무인적인 어머니와 형에게는 한없이 무르다.

극중 감자열은 밝고 긍정적인 인턴 서동희(남상지 분)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사랑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장한다.

양병열은 “촬영 중에 실제로 ‘심쿰’ 한 순간들도 많았다”고 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결혼식이었어

요. 눈에 자꾸 타기 나서 렌즈를 빼고 촬영할 때였는데, 상처 씨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렌즈를 깬 거요. 원래도 예쁘시지만, 그날은 정말 너무 예뻐요. 왜 결혼식을 하지는지 알겠더라고요.”

김이던 촬영을 끝낸 양병열은 모처럼 휴식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전작 KBS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촬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라차차 내 인생' 주연을 맡아 지난 1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로 진로를 정한 그는 삼수 끝에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대학 합격 소식이 팔찌 떨어오르며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제 삶이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저만 생각할 수 있게끔 키워주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감회상상을 못 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이제껏 저를 지탱해주시는 부모님을 위해 성공하고 싶어요.”

그는 “작품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 YG, 제니 뷁 사생활 사진 유포자 수사 의뢰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뷁이 함께 찍은 사생활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된 것을 두고 제니 측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블랙핑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제니의 '개인 사진' 최초 유포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간 관련 언급과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개인 사진으로 촉발된 루머 양산, 비난, 인신공격, 성희롱, 사생활 침해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더는 묵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과도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통신매체이용권 조 등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희망을 꽃피우는 아이가  
너였으면 좋겠어”

모든 아이들에게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꿈꾸고 도전하는 아이로 기르는 인성교육  
아이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후원문의 1577-9572

